

홀어머니家庭

전 9백2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1·9세 이하에 37·6세에 배우자와 사별한 것이 평균적인 편모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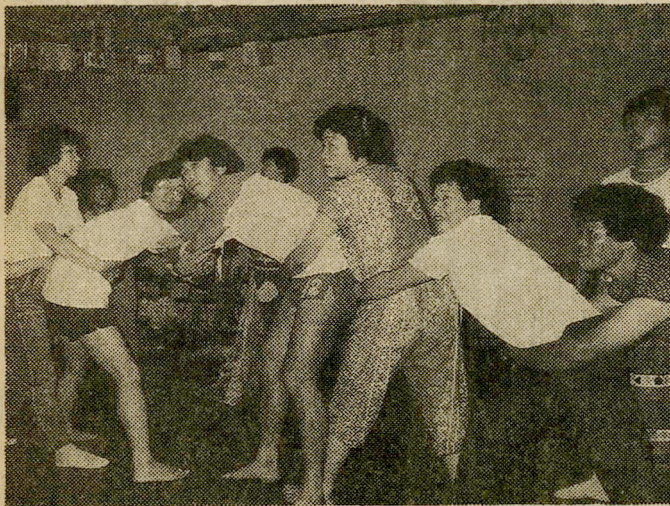
편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0%로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기구생활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생활로 각자의 역할을 맡고있는 편모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교육의 어려움 및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어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로 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전국 1천

여성개발원 저소득층 千9百가구 조사

經濟·자녀교육 어려움



취업편모의 직업은 파출부가 23·7%로 가장 많고 다음이 농업 제조업 근무자 행상인 설농업자 포장마차점의 순이다. 월평균 소득액은 12만 6천원 정도.

평균가족수 3·6명인 모자가족의 월평균소득액은 16만 7천원으로 일반가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아들을 대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52·5%가 저가계를 꾸린다고 응답했는데 대부분 월 20만원 정도를 살만하였다는 의견

을 보였다. 전체가구의 67·6%가 평균 1백5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반면, 소비지출 중에서는 식비가 37·7%로 가장 높고 다음이 교육비 주거비의 지출도 이러한 처

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녀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을 대

월평균 소득액 16만7천원 정도
87%가 환병증세...정서 갈등 심해

모자복지법 제정 생계비보장등 필요

여성단체가 마련한 「모녀 캠프」에서 딸과 함께 보내는 편모들. 모자가족을 위한 사회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자녀교육에 힘을 쏟으면서도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편모들은 자녀를 출원시키려고 할지 모르겠다. 「화비가 내리지 않는다」 함께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6세 이하 미취학아이를 두고있는 편모는 일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41·7%가 「그냥 혼자 내버려둔다」고 했으며 24%가 부모에게 맡긴다고 해 직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탁아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順德기자〉